



**항구 막은 트레일러들** 화물연대 전남지부가 12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날 '총파업 투쟁 출정식'에 참여한 전남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대형 화물차량 500여대가 광양항 주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재협상 준하는 추가협상”

김종훈 본부장 渡美 “30개월 이상 쇠고기 차단”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풀기 위해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반입을 차단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시간으로 13일부터 미국에 파견된 기존 정부협상단과 합류,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관련기사 4·5면>  
 김 본부장은 이번 협상의 형식에 대해 “지난 4월18일 이뤄진 합의의 실질 내용을 바꾸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고 강조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금지를 민간 자율로 합의할 경우 양국 정부가 이를 문서로 보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합의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이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문서로 보증할 경우 정부의 관여가 드러나 국제 통상규범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양국 간에 수일 내 추가적인 양해사항(understandings)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

▲재협상과 추가협상=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에 대한 국제법적 정의는 없다. 다만, 관행적으로 재협상은 ‘이미 타결된 협정문을 수정하기 위한’ 협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추가 협상은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협상으로 해석된다.

연구소 포럼에서 “서울과 워싱턴에서 양국 정부와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 간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 화물 총파업 ... 수출·입 ‘올 스톱’

기아차·광양항·여수산단 등 피해  
 건설·택시도 ‘夏鬪’ 운송대란 우려

물류의 동맥이 끊겼다. 12일 화물연대 전남지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광주지회도 13일 새벽 0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광주지역 산업단지 및 광양항, 여수산업단지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기업의 수출 및 내수 상품 운송이 이날부터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호남지역 수출 관문인 광양항의 하역과 선적, 운송은 12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관련기사 3면>  
 화물연대 전남지부 소속 조합원 1천400여명은 12일 오후 광양항 컨테

이너부두 인근 도로에서 ‘총파업 투쟁 출정식’을 갖고 분회별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기아자동차 운송을 맡고 있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소속 카게리이 조합원 등 200여명도 이날 오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가세했다.  
 앞서 지난 10일 일부 사업장에서 파업을 시작한 화물연대 광주지부 소속 조합 1천여명도 13일 오전 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여기에 비조합원 8천600여명 중 상당수가 고유가

를 이기지 못하고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양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양국가산업단지, 삼성전차, 기아자동차 등의 산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여수해양항만청은 이날 새벽 0시부터 낮 12시까지 광양항 물동량 392TEU(1TEU=컨테이너 1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중 반입량은 223TEU, 반출량은 169TEU로 평소 1일 평균 물동량 5천100TEU(반입 2천600TEU·반출 2천500TEU)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또 화물차대수 기준으로도 평소 527대에서 72.3% 줄어든 146대만 광양항 게이트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광주전자의 경우 하루 250개의 컨테이너 물량을 광양항과 부산항으로 반출하고 있으나, 12일 하루 반출량의 60%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노사협상은 진척되지 않고, 정부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해 파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화물연대 전남지부의 경우 사업장별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최종 합의 문은 전국운수산업노조의 파업 철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채택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전국운수산업노조가 정부에 대해 마련을 요구한 기한인 오는 21일까지는 총파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건설 부문의 제조·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가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전국 택시노조와 개인택시조합 등도 오는 25일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운송업계의 하루가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동국 화물연대 전남지부장은 “표준요금제 시행, 경유값 인하, 운송료 인상 등 모든 요구 조건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총 파업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인현주·김종호기자 ahj@

## “정부 비협조·메이저사 견제로 어려움 전남 조선산업 도와달라”

박준영 지사, 전남 국회의원들에 요청

박준영 전남지사가 12일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정부 부처의 비협조와 조선업계 일부 메이저사들의 견제로 전남지역 조선업 육성에 어려움이 많으며 협조를 요청했다.

박 지사는 이날 서울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2009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전남도에서 인력 고용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나 조선업계 일부 메이저 회사들이 정부 측에 집요한 로비를 하면서 전남지역 조선사들을 견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지난해 전남지역 조선소 육성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 허가 등을 중앙 부처에 요구했으나 일부 조선업계 메이저 회사 측의 로비 등

으로 정부 측에서 조선소 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박 지사는 특히 “일부 기관이 조선소 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등 조직적 방해 움직임을 보였다”면서 “몇몇 메이저 조선사 측에서 최근 조선산업이 이미 포화상태가 됐다는 여론을 조성하며 전남지역에 등지를 틀 계획인 신규 조선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또, 조선산업이 포화상태라면 메이저 조선사들이 설비 확장 및 해외 진출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꼬집는 한편, 전남지역에 들어설 중

형 조선사들은 조선산업의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으로 향후 20~30년 이상 조선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와함께 전남도가 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국고지원요청 사업(247건, 6조4천214억원)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정부 “운송 거부 차량 유가보조금 중단”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12일 오후 5시 위기 경보를 ‘주의(Yellow)’에서 ‘경계(Orange)’로 격상시키고 비상수송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집단 운송 거부에 동참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차량의 경우 연간 최대 1천490만 원에 이르는 유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차량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

로를 막는 화물차는 견인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설치한 관계부처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을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으로 차관으로 강화하고 주요 물류시설과 진입로에 경찰력을 배치해 수송로 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



## 광주은행의 은행장 선임투쟁에 보내주신 광주·전남 지역민의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광주은행은 지역민이 존경합니다.**  
 광주은행은 1981년 설립된 이래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이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 **광주은행은 지역민에 대한 헌신입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년간 사회적 공헌을 위해 100억 원 이상을 기부하고, 100만 명 이상의 지역민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이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 **광주은행은 지역민을 위한 헌신입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년간 사회적 공헌을 위해 100억 원 이상을 기부하고, 100만 명 이상의 지역민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이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지역민을 사랑하는  
**광주은행 노동조합**